

大學圖書館의 學位論文蒐集方案

尹 熙 潤*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學位論文蒐集現況 및 問題點 |
| II. 學術情報源으로서 學位論文의 意義 | V. 學位論文蒐集의 改善方案 |
| III. 學位論文蒐集의 必要性 | VI. 結 論 |

I. 緒 論

社會가 發展하고 大學教育이 大衆化됨에 따라 創造的인 學術의 振興을 擔當하고, 高級頭腦 및 專門人力의 養成은 勿論 이들에 대한 再教育을 擔當하는 重核體로서 大學院教育의 重要性이 점차 高潮되고 있다. 특히 機能的 社會分化의 加速化에 따른 各 分野別 高級·專門人力에 대한 急激한 需要增加와 學問分野의 細分化, 專門化가 促進됨에 따라 大學院教育에 대한 需要가 늘어나고 大學院 學位課程의 多樣化가 要求되고 있다.¹⁾

이와 같이 大學院教育에 대한 需要增大와 多樣한 學位課程의 要求에 副應

* 大邱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1) 韓國教育開發院, 韓國 高等教育 政策研究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5), p. 435.

하기 위한 大學院의 量的 擴大는 결국 各 分野別로 學位論文의 量産을 超來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더욱 加速化 될 것으로 豫想되므로 現在는 물론 장차 學位論文에 대한 統整은 大學圖書館의 重要한 課題일 뿐 아니라 學位論文은 藏書構成上 必須的인 一部分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學位論文은 學位를 請求할 目的으로 該當 大學院에서 要求하는 만큼의 部數만을 大學院에 提出하게 되고, 大學院에서 다시 그 一部分을 圖書館에 보내므로, 大學圖書館의 立場에서 보면 圖書館의 多樣한 資料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一次의 情報源이라 할 수 있는 學位論文을 網羅的이면서도 包括的으로 蒐集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代案 마련에도 積極的이지 못한 實情에 놓여 있다 하겠다.

따라서 本 研究는 學位論文 蒐集業務의 改善을 통한 大學圖書館의 研究機能을 強化하는데 一助할 目的으로 學位論文이 學術情報源으로서 갖는 意義와 그 蒐集의 必要性을 살펴보고, 現行 大學圖書館 學位論文 蒐集業務의 問題點을 分析하여 合理的인 蒐集方案을 提示하여 보고자 한다.

II. 學術情報源으로서 學位論文의 意義

學位論文이란 “學位 (degree or diploma²⁾)를 取得하기 위한 條件으로 提出하는 論文 (thesis or treatise)”³⁾ 혹은 “學位請求를 위하여 提出하는 論文 (thesis or academic dissertation or dissertation)”⁴⁾ 으

2) ‘Diploma’는 碩士學位와 博士學位의 中間學位로 特別히 教育學 分野에서 教育專門家로 불리우는 正規學位라기 보다는 一種의 資格證 비슷한 非正規學位이다. (李星鎬, “碩·博士學位의 種類와 名稱”, 大學教育, 통권 27호 (1987.5), p. 22.)

3) Ray Prytherch, *Harrod's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5th ed. (Aldershot: Gower Publishing, 1984), p. 243.

4) 草野正名 編著, 圖書館學事典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84), p. 28.

로서 英語로는 대개 ‘Dissertation’ 혹은 ‘Thesis’로 表記되는데 이들 두 單語間에는 “어떤 때는 同意語로, 어떤 때는 서로 區別되어 使用되며, 또 어떤 때는 國家나 地域의 習慣 혹은 순간의 氣分에 따라 한 單語가 다른 單語를 完全히 包含하기도 한다”⁵⁾고 한 Davinson의 主張처럼 嚴格하게 區分하기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다만 北美에서는 ‘Dissertation’이 博士學位論文을, ‘Thesis’는 碩士學位論文을 指稱하고, 英國에서는 ‘Thesis’를 더 흔하게 學位論文이란 用語로 使用한다는 見解도 있다.⁶⁾ 한편 유럽이나 日本 및 우리나라의 경우는 特定的으로 ‘博士學位論文’이라 指稱하지 않는 한 博士 및 碩士學位論文을 統合하여 指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學位論文이란 ‘Dissertation’ (博士學位論文)과 ‘Thesis’ (碩士學位論文)을 包含하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겠다.

그러면 學位論文이 學術情報源으로서 지니는 意義는 무엇일까?

먼저 先行 研究者들이 內容, 體裁 및 發行的 觀點에서 言及한 學位論文의 特性을 要約하면 主題範圍의 細分化 및 그 깊이의 深化, 面數의 不均等 및 製本狀態의 不完全, 發行部數의 制限 等이다.

以外에도 學位論文은 論文에서 다루는 專門分野에 대한 知識은 勿論 既存의 學術理論에 대한 批判, 修正 및 擴大를 나타내고 있으며, 論文의 主題와 研究方法이 漸新하고 獨創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에 質적으로 優秀한 情報源이다. 특히 博士學位論文은 大學院委員會가 大學 또는 斯界의 權威者中에서 選定한 5人 以上の 審査委員들의 審査를 거쳐 그 中 5分の 4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할 만큼⁷⁾ 質적으로 相當한 水準이 要求되기 때문에 研究資料로서의 價値가 매우 높다 하겠다.

또한 學位論文은 科學技術分野의 情報中에서 널리 公刊되는 雜誌論文과는

5) Donald Davinson, *Theses and Dissertations as Information Sources* (London: Bingley, 1977), p. 14.

6) *Ibid.*, pp. 16-18.

7) 教育法施行令, 第 132 條 參照.

달리 非公刊情報을 代表하는 一次資料라는 점이다.⁸⁾ 이는 論文 그 自體가 發賣 또는 配布의 目的으로 公刊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할 뿐 그 內容이 公刊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博士論文은 一年 以內에 公表하도록 規定하고 있고,⁹⁾ 실제로 論文 自體에 變形을 가하여 學術誌나 單行本으로 出版하고 있는 實情이다. 外國의 경우도 Moore의 研究¹⁰⁾에 의하면 博士論文이 單行本으로 出版된 경우가 2.1%, 單行本의 一部로 出版된 경우가 1.4%, 그리고 雜誌의 論文으로 掲載된 경우가 15.2%로 나타났고, Boyer¹¹⁾가 自然科學分野 博士學位論文 441篇을 調査한 結果에서도 平均 71%가 出版되었고 29%는 出版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學位論文에는 包括적인 文獻調査를 통한 先行研究가 概觀되어 있으므로 研究者가 追求하고 있는 研究方向 및 主題의 重複을 피할 수 있고 過去의 研究狀況을 살펴 볼 수 있으며, 文獻目錄이나 參考資料로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二次書誌로도 使用이 可能하다는 점이다.¹²⁾

以上에서 살펴 본 學位論文의 特性들을 指稱하는 말로서 Katz는 資料形態的 側面에서 ‘保存文書(Archives)’¹³⁾로 취급하였고, Wood는 會議資料, 報告書 등과 함께 公式的인 流通채널을 통하여 接近하기가 어렵다는 側

8) 寺村由比子, “學位論文의 意義와 利用: 外國의 ものを中心に,” 藥學圖書館, 第 19 卷, 第 3-4 號 (1974), p. 109.

9) 教育法施行令, 第 136 條 參照.

10) Julie Moore, “Bibliographic Control of American Doctoral Dissertation: An Analysis”, *Special Libraries*, Vol. 63 (July 1972), p. 289.

11) Calvin J. Boyer, *The Doctoral Dissertation as an Information Source: A Study of Scientific Information flow* (Metuchen: Scarecrow Press, 1973), p. 7 (민기남, “學位論文의 管理에 관한 研究: 국내 종합대학교 도서관과 관련하여,” 未刊本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6, p. 14에서 再引用)

12) Krishna Subramanyan, “Scientific Literature,”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6 (New York: Marcel Dekker, 1979), p. 439.

13) William A. Katz,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0), p. 201.

面에서 ‘회색文獻(Grey literature)’¹⁴⁾이라 불렀다. 또한 學術情報의 潛在價値를 強調하는 側面에서 Tate는 ‘凍結資産(Frozen asset)’¹⁵⁾으로 表現하였고, Bottle은 ‘最新情報로서의 潛在的 情報源(Untapped potential source of advance information)’¹⁶⁾이라고 한 바와 같이學位論文은 質的으로 優秀한 現在的, 潛在的 一次資料인 동시에 包括的인 二次書誌로 利用될 수 있기 때문에 大學圖書館의 立場에서 보면 모든 形態의 圖書館資料中에서 가장 重要한 學術情報源이라 하겠다.

Ⅲ.學位論文蒐集의 必要性

資料蒐集의 目的을 보면 直接的으로는 藏書構成에 있지만 最終的으로는 資料가 利用者에게 利用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¹⁷⁾ 利用者를 念頭에 두지 않는 資料蒐集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教育 및 研究活動의 支援을 主機能으로 삼고 있는 大學圖書館은 주로 學生과 教授들을 위한 教育·學習用情報과 研究用정보를 集中的으로 蒐集하고 있다.¹⁸⁾ 이들 資料中 特히 後者는 大學의 教授 및 大學院生들의 研究에 있어서 必須的인 資料인 만큼 그 蒐集範圍가 包括的이고 깊이가 있으며, 資料의 種類도 多樣한 것이 特色이다. 즉 國家 및 公共機關의 行政 및 政策資料, 主題別 學術誌, 學會報告書, 學位論文·豫備出版物·會議錄과 같은 未刊行資料

14) David Wood, "Grey Literature: The Role of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Aslib Proceedings*, Vol. 34, No. 11-12 (Nov./Dec. 1982), p. 459.

15) V.D. Tate, "Defrosting a Frozen Asset: The Publication of Doctoral Disserta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14(1953), p. 45.

16) R. T. Bottle, "Scientists, Information Transfer and Literature Characteristic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9, No. 3 (Sept. 1973), p. 287.

17) 日本圖書館協會, 出版流通對策委員會 編, 全國高等教育機關 圖書館における 資料選擇·收書事務·書店=圖書館關係調査結果報告書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1), p. 7.

18) 金子崑重 編, 情報の収集と選擇 (東京: 雄山閣, 1984), pp. 75-84.

등이 研究資料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들 資料中에서 未刊行資料의 相當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學位論文이고 그 量産의 趨勢는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처럼 未公刊資料로서 量産되기 때문에 統整이 困難함에도 불구하고 學位論文을 積極的으로 蒐集해야 할 必要性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意見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學位論文은 質的으로 優秀하고 研究資料로서의 價値가 높은 一次情報源인 동시에 論文主題와 關聯된 書誌가 거의 網羅的으로 收錄되어 있는 二次書誌로서 利用될 수 있는 만큼 圖書館의 어떤 資料보다도 現在的, 潛在的 利用價値가 매우 높기 때문에 藏書構成上 반드시 蒐集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研究者는 물론 學位論文을 準備하는 大學生들이 研究의 重複을 막기 위하여 自己의 研究主題와 關聯된 先行 學位論文에 대한 完璧한 調査를 미리 遂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蒐集되어 있지 않을 경우 研究者가 直接 他圖書館에 가야 하는 時間的 損失과 經濟的 負擔 및 協力の 不足·不在에 의한 利用의 不便性 등 많은 어려움을 甘受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여 보다 積極的인 奉仕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學位論文을 蒐集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研究者들은 주로 學位請求用으로 提出한 論文 그 自體를 檢索對象으로 한다는 점이다.¹⁹⁾ 그 理由는 보통 博士學位論文은 單行本으로 出版되거나 學術誌에 發表되는 반면 碩士學位論文은 學術誌에 發表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데, 發表되는 論文은 대부분이 修正·補完·縮略으로 인하여 原文이 變形되거나 學位를 取得한 후에 紙上에 發表되므로 接하는데 그만큼 많은 時間이 걸릴 뿐 아니라 學位論文인지를 確認하는 일도 쉽지 않

19) 尹相基, “韓國에 있어서 學位論文의 書誌活動,”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 1984, p. 220.

때문이다.

네째, 대다수의 학생과 教授들의 心理狀態를 보면 원하는 論文이 어느 大學에서 提出되어 學位를 取得하였던 간에 현재 自己의 大學圖書館에서 閱覽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根據는 일반적으로 研究者들은 원하는 論文을 探索한 結果 쉽게 接할 수 있는 論文만을 利用하고 確認이 어려운 論文은 看過하며, 손에 넣기 힘든 論文은 無視해 버리는 利用行態의 側面²⁰⁾에서 그 意味를 類推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行態는 圖書館을 不信하는 結果를 超來하기 때문에 學位論文의 蒐集은 不可避한 것이다.

다섯째, 學位論文 그 自體는 非公刊物인 동시에 提出部數가 制限되어 있고 公式的인 流通經路를 통하여 入手하기가 困難한 데도 불구하고, 碩·博士論文作成이나 發表用으로 研究論文을 準備하는 研究者들이 매우 頻繁히 要求하는 資料이므로²¹⁾ 體系的으로 蒐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V. 學位論文蒐集現況 및 問題點

學位論文蒐集에 關聯된 資料는 比較的 最近에 한 研究²²⁾에서 調査되었기 때문에 그 資料와 其他 關聯資料를 活用하였으며, 學位論文의 納本部數에 관한 主要 各國의 資料는 Borchardt와 Thawley의 調査資料²³⁾를, 그리고 國內의 漏落된 大學圖書館은 各 大學院의 要覽中 學位論文規定에 관한

20) K. Subramanyam,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Resources* (New York: Marcel Dekker, 1981), p. 79.

21) Joan M. Repp and Cliff Glaviano, "Dissertations: A Study of the Scholar's Approach,"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48, No. 2 (March 1987), p. 148.

22) 민기남, *op. cit.*, pp. 46-48.

23) D. H. Borchardt and J. D. Thawley comp., *Guide to the Availability of Theses* (New York: K. G. Saur, 1981), pp. 54-419.

事項을 參考로 補充하였다.

가. 藏書現況

現在 國內 綜合大學校 圖書館의 學位論文 所藏量은 <表1>과 같이 1萬卷 以下를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무려 10 個館(32.26%)으로 가장 많은 반면 5萬卷 以上은 1 個館(3.23%)에 不過하다. 全體의으로도 3萬卷 以下를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23 個館(74.19%)을 차지하고 있어, 總學位 取得者數 93,093 名²⁴⁾과 比較하여 볼 때 32.23%에 지나지 않아 學位論文이 제대로 蒐集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表1> 學位論文 所藏量에 따른 大學圖書館數

所 藏 卷 數	圖 書 館 數 (%)
1 千 권 ~ 1 萬 권	10 個館 (32.26)
1 萬 권 ~ 2 萬 권	5 (16.13)
2 萬 권 ~ 3 萬 권	8 (25.81)
3 萬 권 ~ 4 萬 권	4 (12.90)
4 萬 권 ~ 5 萬 권	3 (9.68)
5 萬 권 以上	1 (3.23)
計	31 個 館

또한 最近 2年間의 平均値로 본 增加數는 <表2>²⁵⁾와 같이 全體 13 2,811 권으로 1 個館當 平均 增加數는 2,251 권이며, 2年間 年平均 學位 取得者 11,691 名²⁶⁾과 比較하여 볼 때 약 19.25%로 極히 不振한 實積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受入別로는 交換이 69.7%, 受贈이 27.6%,

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高等教育統計資料集(서울: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6), p. 112.

25) 趙浩一, “學位論文資料의 整理를 위한 調查研究”, 啓明研究論叢(啓明實業專門大學), 第2輯(1984), p. 182.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op. cit.*, p. 112.

購入이 2.7%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交換에 의하여 蒐集하고 있다.

<表2> 受入種別 年間增加數

受入種別	大學別 大學院設置大學 (40 個館)	其他大學 (19 個館)	計
交 換	91,736 권(73.0%)	848 권(11.7%)	92,584 (69.7%)
受 贈	31,846 권(25.4%)	4,763 권(66.0%)	36,609 (27.6%)
購 入	2,010 권(1.6%)	1,608 권(22.3%)	3,618 (2.7%)
計	125,592 권	7,219 권	132,811 권
平 均	3,140 권	380 권	2,251 권

나. 納本部數

먼저 主要 各國의 大學圖書館이 本校 大學院으로부터 納本받고 있는 學位論文 1 篇當 複本數를 보면 <表3>과 같다.²⁷⁾

<表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先進 7 個國의 總 409 個館中 5 卷 以下를 納本받는 圖書館數를 보면 碩士學位論文은 262 個館(64.06%), 博士學位論文은 289 個館(70.66%)을 차지하고 있고, 納本받지 못하는 경우도 碩士 및 博士學位論文이 各各 124 個館(30.32%), 46 個館(11.25%)을 占有하고 있어 대부분이 적은 數의 論文을 納本받거나 아니면 納本받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美國의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UMI)²⁸⁾ 나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CRL)²⁹⁾ 英國의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BLLD),³⁰⁾ 그리고 유럽의 System for

27) Borchardt and Thawley, *op. cit.*, pp.54-419.

28) Subramanyam, *op. cit.*, pp. 440-441; *UMI Pamphlet*.

29) Michael M. Reynold ed., *Reader in Library Cooperation* (Washington: National Cash Register, 1972), pp.199-200; Subramanyam, *op. cit.*, p. 445.

30) Ding Choo Ming, "Access to Dissertations in and on Southeast Asia," *Libri*, Vol. 34, No. 2 (June 1984), p. 96.

〈表 3〉 各國의 學位論文納本部數別 大學圖書館數

국가명	납본부수 학위 종별	1 권	6	11	51	101	151	다 양 합	납지 본 못 합	무 응 답	計
		5 권	10	50	100	150	220				
미 국	박사	142							24	4	170
	석사	160							6	4	
영 국	박사	43							1	3	47
	석사	37							7	3	
캐나다	박사	23							15	1	39
	석사	38								1	
프랑스	박사	54	3	3	2			8	2	1	73
	석사	14			2			6	50	1	
독 일	박사	2	2	2	6	28	2	3			45
	석사		1						44		
폴랜드	박사	13			1			1		1	16
	석사	5						1	9	1	
일 본	박사	12						2	4	1	19
	석사	8						2	8	1	
計	박사	289	5	5	9	28	2	14	46	11	409
	석사	262	1		2			9	124	11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SIGLE)³¹⁾ 등과 같이 어
 떤 特定圖書館이나 機關, 協力體가 中心이 되어 印刷本을 蒐集하거나 Mi-
 croform으로 製作하여 販賣하고 貸出하는 中央集中式 學位論文 管理方法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도 獨逸은 45個館中 39個館(86.67%)
 이 51卷 以上을 納本받아 圖書館 相互間에 論文을 交換하는 一種의 分散

31) J. M. Gibb and M. Maurice, "The System for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 (SIGLE)," *Aslib Proceedings*, Vol. 34, No. 11-12 (Nov./Dec. 1982), pp. 493-495.

式 管理體制를 採擇하고 있어 매우 特異하다 하겠다.

이에 비하여 國內 綜合大學校 圖書館이 本校 大學院으로 부터 納本받고 있는 學位論文 1篇當 複本數를 보면 <表4>와 같다.

<表4> 韓國의學位論文納本部數別 大學圖書館數

學位種別 納本部數	碩 士	博 士
11 卷 以 下	8 個館 (21.62%)	7 個館 (22.58%)
11 ~ 20	4 (10.81%)	6 (19.35%)
21 ~ 30	11 (29.73%)	10 (32.26%)
41 ~ 50	4 (10.81%)	3 (9.68%)
50 卷 以 上	10 (27.03%)	5 (16.13%)
計	37 個館	31 個館

<表4>에서와 같이 碩士學位論文은 總37 個館中에서 21~30 권을 納本받는 圖書館이 11 個館(29.73%)으로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0卷 以上으로 10 個館(27.03%)인 반면에 11~20卷과 41~50卷이 各各 4 個館(10.81%)으로 가장 적은 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全體의으로는 30卷 以下를 納本받고 있는 圖書館이 23 個館(62.16%)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博士學位論文의 경우는 全體 31 個館中 21~30卷을 納本받는 圖書館이 10 個館(32.26%)으로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11卷 以下가 7 個館(22.58%)이며, 41~50卷이 3 個館(9.68%)으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30卷 以下를 納本받고 있는 圖書館이 무려 23 個館(7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外國의 대다수 圖書館은 特定圖書館이나 機關 혹은 協力體로 부터 언제든지 學位論文을 入手할 수 있고 貸出받을 수 있는 體制가 어느 程度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納本部數가 적어도 별 다른 問

題가 없으나 그러한 管理體制가 有名無實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現行 納本部數로는 1987年 現在 大學院課程이 設置되어 있는 全國 103個 大學³²⁾의 圖書館들이 相互交換業務를 圓滑하게 遂行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대해서는 現在 納本받고 있는 部數가 他圖書館과의 寄贈 및 交換業務를 遂行하는데 充分한가의 與否를 調査한 結果에서 總37個館中 ‘充分하다’고 應答한 圖書館은 12個館(32.43%)에 不過한 반면 무려 25個館(67.57%)이 ‘充分하지 않다’고 應答한 것을 보더라도 現在의 納本部數가 充分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交換體制

他大學의 學位論文을 蒐集하기 위하여 他大學圖書館이나 機關과의 公式的인 交換體制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無應答한 1個館을 除外한 38個館中 35個館(92.11%)이 公式的인 交換體制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關聯하여 具體的으로 몇 개의 機關과 寄贈 및 交換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調査에서는 <表 5>와 같이 應答한 34個館中에서 21~30個機關과 寄贈 및 交換을 하고 있는 圖書館이 9個館(26.4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41~50個機關과 交換하고 있는 圖書館이 7個館(20.5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볼 때 30個機關 以下와 寄贈 및 交換을 하고 있는 圖書館이 무려 15個館(44.12%)에 달하고 있어 交換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20世紀 以前부터 學位論文을 複本 出版하여 大學圖書館間에 交換하여 왔고 특히 獨逸은 지금도 全體 大學圖書館의 86.67%가 51卷 以上을 納本받아 交換에 應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제국도 複本을 提出받아 他大學과 交換을 하고 있음을³³⁾ 想起할 때 國內 圖書館間의 學位論文交換을 위한 對策이 要望된다 하겠다.

32)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서울: 문교부, 1987), p. 28.

33) C. Urquart, *Provision and Use of Thesis Information* (London: B L R & D, 1979), pp. 1-15 (민기남, *op. cit.*, p. 25에서 再引用).

한편, 外國의 機關을 包含하여 100 個機關 以上이라고 應答한 圖書館이 2 個館(5.88%)으로 나타난 것도 注目할 만하다. 그러나 外國의 圖書館이나 機關과 協力하여 學位論文을 蒐集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왜냐하면 美國의 경우 UMI가 1938年 美國 및 캐나다의 5 個大學으로 부터 博士學位論文을 寄贈받아 Microfilm으로 製作하기 始作한 以來, 1953年 이 計劃을 擴大시키면서 學術圖書館間의 學位論文交換은 急激히 減少하게 되었고,³⁴⁾ 이제 유럽 및 美國의 대다수 圖書館에서 學位論文의 많은 複本을 出版하여 交換하던 活動이 거의 中斷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外 單位圖書館間의 協力이 아니라 國家的 次元에서 外國의 學位論文을 統整할 수 있는 方案이 模索되어야 하겠다.

<表 5> 學位論文의 寄贈 및 交換機關數

寄贈 및 交換機關數	圖書館數
20 個機關以下	6 個館 (17.65%)
21 ~ 30	9 (26.47%)
31 ~ 40	6 (17.65%)
41 ~ 50	7 (20.59%)
51 ~ 100	4 (11.76%)
100 個機關以上	2 (5.88%)
計	34 個館

라. 入手選定基準

다음으로 他圖書館에서 보내온 學位論文에 대하여 어떤 選定基準을 適用하여 入手하는가에 대한 結果는 <表 6>과 같이 基準이 없는 圖書館이 15 個館(68.18%)으로 나타난 반면, 基準을 갖고 있는 圖書館이 7 個館(31.

34) Joan Ash, "The Exchange of Academic Disserta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30, No.3 (May 1969), p. 239.

82%)인데 그 基準內容을 살펴 보면 本校의 研究課程과의 關聯性 與否를 基準으로 삼고 있는 圖書館이 5 個館이고, 寄贈 및 交換의 繼續性 與否 즉, 誠實性을 따지는 圖書館이 1 個館, 一般大學院 學位論文을 優先順位로 하는 圖書館이 1 個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學位論文은 利用頻度에 못지 않게 交換, 整理, 保管 및 維持에 많은 費用과 努力이 要求되는가 하면 1982 年 現在 世界 主要國 科學技術情報의 3%를 차지하면서³⁵⁾ 점점 增加一路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圖書館의 立場에서 대다수가 選定基準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사 基準이 있다 하더라도 現實性이 없는 基準이 包含되어 있고 具體的이지 못함은 再考되어야 할 問題라고 하겠다.

<表 6> 學位論文入手時 選定基準의 有無

選定基準의 有無	圖書館數
基準이 없다	15 個館 (68.18 %)
基準이 있다	7 個館 (31.82 %)
{ 本校의 研究課程과의 關聯性 與否 寄贈 및 交換의 繼續性 與否 一般大學院의 學位論文을 優先함	5
	1
	1
計	22 個館

마. 外國學位論文의 購入 및 資料形態

外國學位論文의 蒐集方法 및 資料形態에 대한 調查結果를 보면, 外國에서 學位를 받은 本校 教授가 自己의 論文을 寄贈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寄贈에 의하여 蒐集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었으며, 交換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2 個館만이 産業研究院을 통하여 複寫本을 購入하고 있었다.

35) 村上正一, 芦崎達雄, “科學技術情報의 國際的 流通의 あり方에 關する 調査報告” 情報管理, Vol. 29, No. 12 (March 1987), p. 995.

또한 資料形態는 美國의 UMI 를 통하여 Microfiche 로 購入하는 圖書館이 1 個館, 國內의 一部 學位論文을 Microfilm으로 製作하여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1 個館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아주 적은 量이었다.

이와 같이 外國學位論文의 寄贈이나 交換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로 購入에 의하여 資料를 갖추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現實은 그렇치 못하다. 어쨌든 學術的 價値가 매우 높은 學位論文을 國內 代行業를 통하여 購入하든 美國의 UMI 社와 같은 專門機關을 통하여 購入하든간에 보통 3~4 個月이라는 긴 時間이 걸리고, 論文 1 篇當 單價도 單行本에 비하여 비싼 편이기 때문에 購入實務를 擔當하고 있는 司書나 實際로 必要로 하고 있는 研究者의 立場에서 負擔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購入하는 學位論文의 形態도 印刷本과 Micro 資料가 있으나 각기 長·短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形態의 것으로 決定하여야 할 것인가는 當面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V. 學位論文蒐集의 改善方案

學位論文은 一次資料中에서 그 流通이 가장 限定的인 資料인데도 불구하고³⁶⁾ 그 要求度와 利用性은 날로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體系的이고 効率的인 蒐集方案의 模索이 必要하다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前章의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問題點과 其他 學位論文 蒐集上 再考되어야 할 事項들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그 改善方案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圖書館에 提出하는 學位論文 1 篇當 納本部數를 늘려야 하겠다.

一般的으로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學位論文의 入手方法으로는 納本入手, 受贈入手, 交換入手, 購入入手, 保管轉換入手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

36) 寺村由比子, “學位論文의 二次資料,”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Vol. 28, No. 12 (1978. 12), p. 607.

나³⁷⁾ 國內 대다수의 大學圖書館은 外國學位論文이 아닌 國內 他大學의 學位論文을 受贈이나 交換에 의해서만 蒐集할 수 있으므로 學位取得用으로 提出한 學位論文의 많은 複本을 大學院으로 부터 納本받아서 交換에 萬全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表 4>의 分析結果에서 碩士 및 博士學位論文을 각각 30 卷 以下로 納本받고 있는 圖書館이 무려 全體의 62.16%와 74.19%로 나타난 것은 學位論文蒐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端的으로 證明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1982 年 以後 全國 160 個 以上의 大學院에서 매년 쏟아지는 1 萬篇 以上의 學位論文³⁸⁾ 中 自館의 利用者들을 考慮한 適당한 量을 恣意하게 集書하여 學位論文의 不在에 따른 利用者들의 不滿을 極小化시키기 위해서는 現在 30 卷 以下를 納本받는 圖書館은 最小限 40 卷 以上으로 上向·調整하되 人文·社會·自然科學 等 學問領域別로 納本部數를 彈性性있게 差等 策定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된다. 이를 위하여 이미 國內外 一部 大學에서 施行하고 있는 學位取得者의 納本論文에 대한 財政的 支援策의 講究와 함께 大學內의 關聯機關과 協力하여 圖書館에 대한 本校出版物 納本規定을 成文化하고, 條文上에 納本部數를 明記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各 圖書館은 相互協力下에 地域別이나 主題別 혹은 大學의 設立性格別로 適切한 交換體制를 確立하여야 하겠다.

學位論文의 體系의인 蒐集은 곧 學位論文 利用者滿足의 極大화와 直結된다고 할 만큼 利用者奉仕에 있어서 必須的인 先行條件이기 때문에 美國과 유럽에서는 交換努力과 制度的 裝置마련에 心血을 기울여 왔다. 즉, 自國內에서의 相互 交換努力은 1938 年 美國에서 博士學位論文의 Microfilm化를 계기로 그 活動이 거의 中斷되고 있으나 獨逸 및 스칸디나비아제국 等 一部 國家의 圖書館에서는 아직도 많은 部數를 納本받아 直接 交換하고 있

37) 尹炳泰, “大學圖書館情報源으로서의 學位論文,” 國立大學圖書館報, 第 2 輯(1984), pp. 5-6.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op. cit.*, p. 102, 112.

다. 반면에 國家的 혹은 商業的 次元에서의 交換 및 利用計劃은 Microform 資料가 普及되면서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機能을 하는 곳이 美國의 UMI, 英國의 BLLD, 프랑스의 Sorbonne 大學圖書館, 그리고 유럽의 書誌데이터 베이스 體制인 SIGLE 等이다. 또한 IFLA 산하의 IATU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chnical University Libraries)는 美國과 유럽간의 學位論文을 交換하기 위하여 ① IATUL의 유럽會員圖書館은 指定되어 있는 美國圖書館에게 學位論文을 繼續보낼 것 ② 유럽의 會員圖書館은 Microfilm으로 된 美國學位論文의 完帙을 받을 것 ③ 美國은 유럽의 會員圖書館에게 「Dissertation Abstracts」 1부를 보낼 것 ④ 이러한 交換業務는 國家圖書館協會를 통하여 準備할 것 等を 提案하였으며,³⁹⁾ CRL은 1949年 美國 中西部地域 10個 大學圖書館으로 發足하여 現在는 캐나다, 멕시코의 研究圖書館까지 會員으로 두고⁴⁰⁾ 美國, 캐나다, 英國, 소련의 博士論文과 外國의 碩士論文을 除外한 外國博士論文의 印刷本을 蒐集하여 相互貸借나 複寫奉仕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學位論文 交換體制에 관한 <表5>의 分析結果에서 30個館 以下와 交換하고 있는 圖書館이 全體의 44.12%를 占有하고 있어 圓滑하게 交換되고 있지 않는 데다가 1978年 2月末 現在 博士學位論文을 15萬卷 程度 所藏하고 있는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⁴¹⁾과 比較하여 볼 때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의 蒐集機能마저 微弱한 實情이며, 한 研究에서도 地域間 혹은 性格이 비슷한 圖書館間의 交換不足으로 學位論文에 대한 不滿足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⁴²⁾ 따라서 合理的인 基準이

39) David Bishop, "Scientific Thesis Control in Europe and America", *American Documentation*, Vol. 10 (Jan. 1959), p. 52.

40) Reynold, *op. cit.*, pp. 199-200.

41) 外垣豊重, "博士論文의 收集とその 經過について", 國立國會圖書館月報, 第 205 號 (1978. 4), p. 2.

42) 양병훈, "大學圖書館藏書의 效率性에 관한 研究", 未刊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pp. 43-44.

없이 그저 보내 오니까 보내 주는 그런 式으로 交換할 것이 아니라 大學의 研究特性과 利用者를 考慮한 主題別 交換體制라든가 地域別 交換體制 아니면 國·公立, 私立 等 大學의 設立性格에 따라 協力하는 有機的인 交換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國家圖書館은 그와 같은 下位시스템들을 全體的으로 統括하는 機能과 納本機能을 더욱 強化하여 國內·모든 學位論文을 統整하고, 外國의 學位論文과 交換하는 센터로서의 役割은 勿論 大學間의 交換채널을 통하여 蒐集하지 못한 論文에 대한 奉仕對策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學位論文을 入手할 時의 選定基準을 具體的으로 設定하여야 하겠다.

오늘날 社會의 高級·專門人力에 대한 需要增加와 學問의 專門化 및 細分化에 따른 大學院教育의 要求增加로 많은 學位論文이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즉, 美國의 경우를 보면 1861年 Yale 大學에서 美國 最初의 博士學位(授與된 以來로 1970年까지 약 340,000名의 博士가 輩出되었고,⁴³⁾ 그 以後로는 매년 약 35,000篇의 博士論文이 提出되고 있으며,⁴⁴⁾ 우리나라도 1952年 서울大學校에서 最初로 博士學位(授與된 以來로⁴⁵⁾ 1987年 現在까지 약 150,500名이 碩士 및 博士學位(를 받았고,⁴⁶⁾ 1986學年度에만 20,669篇의 碩士 및 博士學位論文이 提出되었다.⁴⁷⁾

그러나 이와 같이 生産된 學位論文은 非公刊物이기 때문에 大學相互間에 있어서 交換資料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⁴⁸⁾ <表 6>의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려 68.18%를 占有하는 圖書館이 選定基準

43) Dael Wolfle and Charles V. Kidd, "The Future Market for Ph. D.'s: The Rate of Increase of Ph. D. Production raises Policy Issues for Universities and Government," *Science*, Vol. 173 (August 27, 1971), p. 784.

44) C. Uguart, *op. cit.*, p. 1-12.

45) 서울大學校 40年史 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40年史: 1946-1986 (서울: 서울大學校 40年史 編纂委員會, 1986), p. 81.

46)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65-1987.

47) 문교부, *op. cit.*, p. 625.

48) 趙浩一, *op. cit.*, p. 182.

없이 무조건 入手하는 것은學位論文集書의 質을 低下시키는 行爲일 뿐 아니라 空間確保의 어려움, 整理의 遲延, 保管·維持費用의 增加 等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資料選擇 및 評價의 基準이 適當한 集書를 保障하듯이 適切한學位論文集書를 蒐集하여 業務의 效率性을 기하고 利用者의 利用可能性을 最大한 높이기 위해서는 入手時에 適用할 選定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는데, 具體的으로 本校의 大學院에 開設되어 있는 研究課程에 符合되거나 關聯되는 論文은 모두 蒐集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차 開設될 것으로 計劃되어 있는 研究課程에 關한 論文, 本校의 大學院 水準과 비슷하거나 보다 優秀하다고 判斷되는 大學院의 論文, 特殊大學院보다는 一般大學院의 論文, 그리고 相互交換時的 信賴性 等を 選定基準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네째, 經濟的이면서도 迅速하게 入手할 수 있는學位論文 購入시스템을 開發하여야 하겠다.

外國의學位論文은 受贈이나 交換에 의해서는 거의 蒐集할 수 없기 때문에 購入에 依存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現況分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購入하고 있는 圖書館數 및 論文數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 理由는學位論文에 關한 書誌情報을 入手하지 못한 데서 起因한 研究者의 購入要求不在 및 不足現象, 處理遲延에 따른 利用者不滿, 高價의 資料임에도 불구하고 表紙의 貧弱 및 製本狀態의 不完全에서 오는 購入資料의 性格의 不分明性, 購入 및 整理業務量의 過多에 따른 職員의 心理的 葛藤 等과 같은 要因들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이 購入活動을 萎縮시키는 要因들을 除去하여 學術的 價値가 높은學位論文集書를 經濟的으로 迅速하게 購入하기 위해서는 外國學位論文의 購入經路에 대한 開發이 要求된다 하겠다. 즉, 外國으로 부터 直接 購入할 경우에는 1938 年에 研究圖書館協會(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援助를 받아 博士論文의 複製·配布·抄錄誌出版 等 綜合的

業務를 始作한 以來로⁴⁹⁾ 現在까지 하버드大學校, 메사추세츠工科大学 및 시카고大學을 除外한⁵⁰⁾ 약 415 個大學과 機關의 參與下에 1961 年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北美, 유럽 지역에서 授與된 70 萬種의 博士學位論文과 10 萬種의 碩士學位論文을 學問分野別로 體系的으로 所藏하고 있는⁵¹⁾ 美國 UMI 社의 印刷形態와 Micro 形態 學位論文의 製作 및 販賣채널을 活用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채널을 利用하면 代行機關을 통한 間接購入보다 迅速하게 購入할 수 있으나 印刷本은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1冊當 약 50 달러 程度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며, 마이크로資料는 印刷本 보다는 低廉하고 蓄積空間도 節約할 수 있지만 可續機와 같은 附帶裝置를 設置하여야 하는 短點이 있다.

한편 國內 代行機關을 통한 購入方法으로는 現在 UMI 社의 論文購入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教保文庫와 같은 國內 特定채널을 利用하거나 새로 開發하여 各 圖書館은 相互協力下에 必要한 論文을 注文하고 入手된 資料는 相互複寫하는 方案, 아니면 特定商業機關에서 各 圖書館으로 부터 主題別로 注文을 받아 Micro 資料를 入手한 후 多數의 複本을 印刷形으로 發刊하여 配布하는 方案, 그리고 外國의 博士學位論文의 印刷本을 蒐集하여 國內에 配布하는 美國의 CRL과 같은 시스템을 開發하는 方案이 있다. 그 외에도 國立中央圖書館이 圖書館法 第16條 1項에 明示되어 있는 ‘國內外 資料의 蒐集·整理·分析·蓄積 및 公衆에의 利用’의 機能을 誠實히 遂行하기 위하여 어떤 形態로 되어 있던 간에 外國學位論文을 入手하여 配布할 경우 國內 大學圖書館에서는 보다 容易하고 經濟的으로 購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圖書館의 蓄積空間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學位論文의 마이크로화가 時急하다 하겠다.

49) 寺村由比子, “學位論文의 意義와 利用,” p. 115.

50) Jack Plotkin, “Dissertations and Interlibrary Loan,” *Reference Quarterly*, IV (Jan. 1965), p. 8.

51) *UMI Pamphlet*, p. 5.

學位論文의普及形態로는公式的인媒體로出版된單行本,未公刊報告書로서의學位請求論文,마이크로形態의非圖書資料,그리고데이터베이스에 의한出力形式資料 등으로나눌수있겠으나單行本은市場性的인問題가,學位請求用論文으로많은部數를印刷할 경우에는學位論文作成者の印刷費過負擔 및圖書館의空間確保問題 등이發生하게된다. 또한데이터베이스에 의한出力形式은圖書館의電算化가先行되어야만可能하다.

반면에마이크로形態의資料는情報의最小縮小性,記錄의正確性 및迅速性,復元·複製의多樣性,半永久的인保存性,情報의質·形態·크기의統一性,多樣한記錄性 등과같은特徵⁵²⁾을 지니고 있어情報化社會의媒體로서脚光을받고있으며,실제로오늘날모든圖書館이直面하고있는資料保存을 위한空間確保問題,頻繁한貸出로 인한資料損失 및毀損問題를일시에解決해줄수있기 때문에歐美各國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學位論문을마이크로形態로出版하고있다.

마이크로資料는1953年 맨체스터의光學器機商人Dancer가마이크로필름을作成한것이그嚆矢이지만⁵³⁾情報資料로서의發展 및普及의主體를이룬나라는美國이다.⁵⁴⁾ 특히UMI社는1938年世界最初로圖書資料의마이크로필름화計劃인Short-Title Catalogue Project를實現시키면서⁵⁵⁾學位論문을마이크로形態로出版하기始作한後北美와유럽에서授與된80萬種의碩士 및博士學位論文所藏本과年次增加量35,000種을學問領域別로分類하여讀者들의要求에따라Microfiche나Microfilm 또는複寫本으로販賣하고있다. 또한1977년에實施된Patterson

52) 後藤公明, “マイクロ寫眞入門,” マイクロ寫眞, Vol. 17, No. 8 (1981. 8), pp. 24-26.

53) Adams, “History of NMA awards,” *Journal of Micrographics*, Vol. 9, No. 5 (1976), p. 247.

54) D. Mason, *Document Reproduction in Libraries*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es, 1966), pp. 53-54.

55) *UMI: Korea* (유인물), p. 2.

等の調査에서도 90 個 大學圖書館中 42 個館이學位論文을 마이크로形態로所藏하고 있다.⁵⁶⁾

한편 마이크로化된學位論文을蒐集·供給하는國家圖書館網의典型的인例로英國의BLLD를 들 수 있는데 이貸出圖書館은 1981年現在 43 個大學으로 부터 마이크로化된學位論文을提供받아貸出·複寫利用에應하고 있다.⁵⁷⁾

그러나우리나라는 다만 2 個館이 적은 量의 마이크로化된學位論文을所藏하고 있을 뿐國家的次元에서나大學圖書館의水準에서學位論文을 비롯한各種資料에 대한 마이크로化의必要性을認定하면서도 그計劃을積極的으로推進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外國의學位論文은 가능한 한 마이크로形態로購入하는 한편國內의學位論文은國家代表圖書館이印刷本을納本받은後 마이크로形態로複本을製作하여必要로 하는大學圖書館이나個人에게提供하는法的,制度的裝置를 마련하는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 마이크로資料의經濟性이나空間節約的側面을考慮하여 마이크로化 할對象資料를學位種別에 따라伸縮性있게決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學位論文의發行에關한情報를 알 수 있는綜合書誌,主題別書誌,所藏目錄과 같은多樣한二次資料를發刊하는 것도學位論文의購入 및交換對象大學이나對象論文에關한資料蒐集活動을效果的으로支援하는手段이 될 것이다.

56) Kelly Patterson, Carol White and Martha Whittaker, "Thesis Handling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21, No. 3 (Summer 1977), p. 280.

57) Wood, *op. cit.*, p. 463.

Ⅵ. 結 論

學位論文은 一次情報中에서 그 流通이 극히 限定的인데도 불구하고 學術的으로 매우 重要하며, 利用度가 높기 때문에 보다 體系的이고 効率的인 蒐集方案의 摸索이 要請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中心으로 提示한 改善方案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圖書館에 提出하는學位論文 1篇當 納本部數를 늘려야 하겠다.
2. 各 圖書館은 相互協力下에 地域別이나 主題別 혹은 大學의 設立性格別로學位論文 交換體制를 確立하여야 하겠다.
- 3.學位論文은 入手할 때의 選定基準을 具體的으로 設定하여야 하겠다.
4. 經濟的이면서도 迅速하게 入手할 수 있는學位論文 購入시스템을 開發하여야 하겠다.
5. 圖書館의 蓄積空間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學位論文의 마이크로화가 時急하다.
- 6.學位論文의 發行에 관한 情報를 알 수 있는 多樣的 書誌의 發刊은學位論文 蒐集業務를 効果的으로 支援하는 手段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

Acquisition of Theses in University Libraries

Yun, Hee Y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urrent theses acquisition in university libraries and to suggest some useful findings for the more efficient acquisition of the thes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Depository copies of each thesis in the libraries should be increased.
- (2) Under cooperative efforts, libraries must establish the exchange system of the theses by region or subject or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 (3) Each library should set up concret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ceiving of theses.
- (4) Development of purchase system would be necessary for economic and prompt acquisition of theses.
- (5) Theses should be microformed so as to save their storage space.
- (6) To give support to effective acquisition activity, various bibliographies about theses should be published.

* Dept. of Library Science, Taegu University, Lecturer.